

작년 전국 화장률 역대 최고치

지난해 전국 화장(火葬)률이 82.7%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7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 화장시설에 대해 2016년도 전국 화장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화장률은 매년 수치를 경신 중이다.

화장률은 지난 1994년 20.5%에서 2005년 52.0%로, 처음 50%를 넘어 서며 화장률을 추월했다.

이어 2011년(71.7%)에는 70%를 넘어선 후 2015년은 80%선도 돌파

지난해 82.7% 전년보다 1.9% 증가해

남성 85.4% · 여성 79.5% · 20대 97.7%

하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85.4%, 여성 79.5%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5.9%포인트 높다.

복지부는 "전체 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지만 연령대별로는 화장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80세 이상 사망자수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80세 이상 사망자수를 연령별로 보면

남성 4만4920명(화장률 76.4%), 여성 7만4405명(화장률 74.8%)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사망자가 97.7%로 가장 높고,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95.3%, 60대 이상의 화장률은 79.8%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은 부산이 92.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 91.2%, 울산 90.2%, 경남 88.9% 등 8개 시·

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제주 67.7%, 충남 68.2%, 경북 71.2%, 충북 71.4% 등의 순이다.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은 87.8%였으나, 비수도권은 79.2%로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8.5%포인트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화장률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화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스

日보육원에 美군용기 부품 추정 물체 낙하

주일미군 기지가 집중된 일본 오키나와(沖縄)현에서 또다시 주일미군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현 내 한 보육원 지붕에 미군 항공기 부품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진 것으로, 부상자 등 인명피해는 없는 않았지만 히미터면 어린이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7일 오전 10시 20분경 오키나와현 기노완(吉野)시에 위치한 한 보육원 지붕에 무언가 떨어지는 큰 소리가 나. 보육원 직원이 확인한 결과, 미국 군용기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

이 물체는 길이 약 20cm, 직경 7cm정도의 원통형 모양이며 'US' 등의 글자가 영어로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 보육원은 후텐마 미군 비행장으로부터 약 300m가량 떨어져 미군기가 상공을 빈번히 통과하는 지역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붕에 물체가 떨어진 지점도 미군 항공기가 보육원 상공을 통과한 직후다. 경찰은 해당 물체가 미군기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육원 원장은 NHK에 "당시 어린이들이 물건이 떨어진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며 "보육원 상공이 미군기의 비행 경로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군 군용기가 보육원 상공을 통과한 뒤 지붕에서 큰 소리가 나고 화약 같은 냄새가 났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반일 미군 항공기에서 낙하한 것이라면 확실히 미국 측에 안전(運轉)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내년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대선 승리는 4선의 꿈을 이루게 된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니즈니 노브고로드주에 위치한 자동차 공장에서 열린 노동자, 재향군인들과의 행사에서 "그렇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시상식에서 조만간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대선은 내년 3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푸틴은 3선 임기는 내년 5월 7일까지다.

푸틴 대통령은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조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제대로 지켜내겠다는 열연 믿음이 이 결정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목표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만 성취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반문하고 싶다. 내가 (출마를)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출품 80%를 웃도는 압도적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그는 2000년 처음 대통령직에 오른 뒤 연임에도 성공했다. 그는 '차르'(제정 러시아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절대권력을 누렸다.

中 초등학교, '가스대란' 탓 운동장 수업

올 겨울 중국 북부 지역의 '가스대란'으로 인해 초등학교 학생들이 추운 교실을 피해 햇볕이 비치는 운동장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6일 중국 칭닝바오, 홍콩 명바오 등은 중국 정부가 북부 지역의 주된 오염원 중 하나인 석탄 난방을 가스나 전기 난방으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가 심각하게 부족한 이른바 'LNG 대란' 사태가 벌어져 최근 히베이성 바오딩 취안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베이징과 텐진, 히베이성 지역의 약 300만 가구에 가스 난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석탄 난방기구의 판매·사용을 금지했다.

해당 학교 학생 학부모는 "현지 동계 난방 공급일이 약 20일이나 지났지만 학교 측은 난방을 공급하지 않았다"면서 "그늘진 교실 안은 운동장보다 더 춥다"고 했다.

이 학교 뿐만 아니라 취안현 다른 학교에서도 난방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일자 취안현 교육국은 "지역내 초등학교에서 석탄 난방시설을 가스 난방시설로 교체하는 작업이 제때에 마무리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추가 근무 등을 통해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5·18 당시 전투기 폭격 계획 있었다”

기념재단, 美 대학 자료 공개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폭격 계획이 있었다는 내용이 미국 대학 도서관 보유 자료에서 발견됐다.

5·18기념재단은 7일 오후 재단 시민사랑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UCLA대학 동아시아 도서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광주를 폭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광주 체류 선교사들이 반대해서 철회했다는 내용의 영문책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념재단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서 다각도로 확인해야 한다"며 "다만, 당시에 이러한 루머가 미국 현지에서도 회자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확보한 1980년 5월 23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 기자 브리핑 질의·응답 자료를 보면 미국 측 기자들도 루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무부 대변인이었던 호딩 카터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다"며 "호딩 카터는 '국방부 소관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기념재단은 UCLA 동아시아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민주화운동 및 인권, 통일 관련 자료 중 5·18 관련 자료 6000여쪽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시사격·전투기 대기 등 관련 의혹을 검증하고 있다.

최남규 기자



뜨거운 자갈 속에 구워지는 한과

7일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령마을 마을회관에서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마을 아나네들이 큰 가마를 뚜껑에 뜨거운 자갈로 한과를 굽는 전통방식으로 한과를 만들고 있다.

전남도, 낚시어선 특별점검...29일까지 15개 시군 830척

전남도는 최근 인천 영흥도에서 낚시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일부터 29일까지 동절기 낚시어선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5개 시군 830척을 대상으로 낚시객이 13인 이상 승선하는 5t 이상 다중이용 낚시어선이 점검 대상이다.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군, 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낚시어업인 등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최근 낚시어선의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선박 안전설비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기타 건전한 낚시문화 위해 요소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및 인명피해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

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등 엄중 조

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전두환 재발간 회고록 법적 대응

5·18민주화운동 당시 암매장을 부정하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의 출판·배포를 금지하기 위한 두번째 소송이 제기됐다.

5·18기념재단과 전두환 회고록 법률대응팀은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기념재단 사랑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단과 5월 단체,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학살해 암매장했다는 것은 유언비어다 ▲경찰 지휘부와 경찰들이 치안 유지를 포기한 채 도주해 불가피하게 계엄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등 40건의 허위 사실을 특정했다.

최남규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제는 **포경상**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eongChang 2018
PyeongChang 2018